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파견교의 개강일정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실제 개강일은 파견교에서 공지한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문의한 뒤 항공권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에어프랑스, KLM항공, 터키항공, 루프트한자 등의 학생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LM과 터키항공을 이용했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캠퍼스 프랑스 서류 제출 및 면접, 대사관 서류 제출 및 면접과정을 거친 뒤, 최종과정에서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2주에서 1달 정도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꼭 출국 전 2-3달 정도 전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원하는 날짜에 대사관 면접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봤다면 바로 대사관 면접을 미리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일에서 2주 정도 이후의 날짜들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날짜 변경도 가능합니다.

유학생 보험은 여러 종류의 유학생 보험들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 본 뒤, 자신의 선호하는 조건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다양한 사고들을 보장해주고, 자신의 파견기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고, 파견교 기숙사 측에서 요구하는 현지 주택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나. 필요물품 (짐 꾸리기)

- 제 경험으로는 너무 많은 양의 옷은 정말 불필요합니다. 옷 대신 그 공간에 블럭국, 코인욕수, 간단한 조미료 등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닭소스는 어디에서나 판매하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으로는 전기장판, 미니 밥솥, 멀티 쿠키, 주방용 칼과 가위 (현지에서는 매우 비싸게 주고 사야 쓸만한 도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여분의 증명사진, 생리대 특히 오버나이트 (해외의 생리대는 우리나라의 생리대만큼 흡수력이 좋지 않고 탐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 상비약, 핸드용 저울 (여기저기 짐 챙길 때 아주 유용함), 휴지 1개 (도착해서 바로 사용할 양만), 여행용 샤워세트 (도착해서 생필품을 바로 살 수 없을 때, 여행 다닐 때 유용하게 사용), 샤워기 헤드+샤워기 필터 등입니다.

사실 짐은 가져가는 만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챙겨갈 수록 유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많은 양의 짐을 끌고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수하물을 추가할지, 그 가격만큼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할지 고민해보시고 최대한 현명하게 짐을 꾸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랑스어만을 고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직접 겪어본 결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주요 관광지에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친구와 대화를 해 본 결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프랑스어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니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활하다보면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고 나올 때, 타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 꼭 인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통과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항상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역마다 사용하는 교통권이 다른 점이 처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매우 헷갈렸습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도 적용되므로 가는 곳 마다 교통권에 대해 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가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서버에게 자리를 안내 받은 뒤 착석해야 한다는 것과, 주문을 할 때도 손을 들고 크게 서버를 부르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적 과정의 처리가 아날로그적이며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의 모든 행정절차는 최대한 미리미리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가지 점이 한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문화이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물가는 한국의 물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최근 유로의 환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더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한번 제대로 된 식당에서 외식을 하려면 기본 4-5만원은 써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요리를 자주 해먹었습니다. 식재료 값은 매우 저렴하지만, 아시안 마트에서 한국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거주한 지역은

엑상 프로방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남부에 위치해 있고 관광지는 아니지만,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로 조금은 부유한 느낌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리, 니스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체감 물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저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학원 과정 보다는 진짜 해외의 대학교를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 정규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대도시인 리옹에 위치한 리옹 대학교 파견을 희망했지만 지원 조건에 맞는 델프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을 고민해보다가 지원 조건인 델프 자격이 충족되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가 눈에 띄었고, 해당 대학교가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창한 프랑스 남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제 첫 정착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통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우분들은 파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랑스 남부의 엑상 프로방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에 이동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니스 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니스 공항에서 엑상 프로방스로 이동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지 이 경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란 아주 어려웠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남부에서만 운행하는 ZOU 버스로 엑상 프로방스에 가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구글맵이 버스 정류장을 잘못 알려주는 기이한 현상을 겪은 뒤, 저희가 타야할 마지막 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니스 공항 주변의 숙소에서 1박을 해야만 했고, 다음 날 다시 버스를 타려고 도전했지만 날씨 좋기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에서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은 짐을 끌고 다시 버스 정류장을 찾아갈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볼트 앱을 이용했고 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2인 기준 인당 15 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엑상 프로방스와 매우 가까운 마르세유에도 공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에 파견 예정인 학우분들은 마르세유 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르세유 공항에서 엑상 프로방스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황색 L40번 버스 티켓을 끊어서 타면 엑상 프로방스 Gare routiere에 3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셀프

로 티켓을 발권해도 되고 어렵다면 티켓부스에서 직원에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짐이 많아서 힘들다면 공항에서 엑상 프로방스 시내까지 택시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이용한다면 Gare routiere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 내용 (프로그램 과정)

- 수강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신경써야할 것이 많았습니다. 수강신청과 관련한 대략적인 내용은 파견교 측에서 메일로 알려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일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토대로 시차에 유의하여 마감기간을 잘 지켜서 진행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메일로 어떤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파견교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 외의 수업들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학과의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그 첨부파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듣고 싶은 수업이 있거나, 첨부파일에 있는 수업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메일을 보내주신 담당자님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개강을 한 뒤에도 일정 기간까지 수강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매우 여러 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보고 해당 수업이 본인과 너무 맞지 않는다면 시간표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은 교환학생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몇 가지 따로 존재했고, 일반 강의는 프랑스로 진행되는 수업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의마다 다르겠지만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보는 강의가 있고, 쪽지시험처럼 3번에 나누어 시험을 보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평가방법은 수강하는 강의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출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출석체크를 하지 않는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의방법은 교수님만 수업을 하는 CM라는 형식이 있고, 수업시간이 교수님의 강의 50% + 조별 토론 50%인 T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TD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교수님의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4. 기숙사

- 저는 CITE LES GAZELLES 이라는 CROUS를 사용했습니다. CROUS는 프랑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형식으로, 제가 사용한 가젤은 1인 1실의 방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방은 깔끔하고 1인이 살기에 적합한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기숙사의 컨디션이 좋아서 한 학기 동안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프랑스 주거건물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꼭대기 층의 방을 사용하는 저에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기숙사와 CROUS는 살짝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학교 안에 위치해 있지 않은 점, 통금이 없는 점, 남자와 여자의 기숙사가 나뉘어져있지 않은 점,

본인 외의 친구를 방에 초대하는 것이 자유로운 점 등이 달랐습니다. 또한, 기숙사에 엔지니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러 오시는 점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 저는 교내의 TANDEM 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두 가지 정도의 언어를 작성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주십니다. 한 학기 동안 최소 6번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서로 언어교환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원어민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회화능력을 키우고, 서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짝이 되었던 친구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6. 꿀팁 (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주최되는데, 학교에서 메일로 많이 홍보를 해줍니다. 메일함을 잘 확인해보고 관심 있는 활동이 있다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한 뒤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에는 여러 종류의 마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Carrefour 라는 브랜드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식재료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Carrefour, Casino라는 마트가 가장 저렴했고 그 다음으로 Utile, Monoprix 순이었습니다. Monoprix 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세일기간에 이불이나 옷걸이, 휴지통 등의 생필품을 살 때 유용합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음식을 해먹게 될 텐데, 가장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은 파스타입니다. 소스나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아주 다양한 파스타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빨간색의 가장 싼 파스타 브랜드 상품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브랜드 보다는 Barilla라는 남색의 브랜드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식을 먹기 위해서 미니 밥솥과 불력국을 필수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엑상 프로방스에서는 트래블월렛 같이 컨택트리스 기능과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상 프로방스에 가시는 분들은 Gare routiere에 있는 티켓 오피스에서 학생용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를 만들 때 증명사진을 꼭 들고 가야합니다. 교통카드를 만든 뒤 필요할 때 마다 기계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오피스에서 1달이나 1년 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1년권은 제 기억으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를 자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기계에서 10회권씩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카드를 만들 때 엑상 프로방스 내에서만 이용할 것인지 마르세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 것 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마르세유를 매일매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엑상 프로방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이득인 이유는, 학생용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충전식 기계에서 엑상 프로방스 - 마르세유를 왕복으로 2유로에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카드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행정보

- 저는 파견 기간 중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녀왔던 모든 여행지가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곳을 고르라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좋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워낙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선 볼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깨끗했고, 특히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꿀대구를 비롯한 해산물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는 정말 너무 예쁜 도시였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여서 관광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모로공원에 앉아서 버스킹 음악소리를 들으며 포트와인과 에그타르트를 먹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를 인생 여행지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다녀와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저 또한 포르투를 인생 여행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았던 포르투를 다른 분들도 꼭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유럽 국가들을 해보면서 여러 국가들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느낌의 여행지에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아프리카인 모로코와 이탈리아 밑에 위치해있는 몰타 라는 국가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로코에서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에서의 2박은 저에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 또한 포르투 만큼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몰타에서는 아름다운 바다를 아쉬움 없이 즐겼고, 저렴한 물가와 더불어 중세시대의 도시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였습니다.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질릴 때쯤에 이색적인 여행지를 찾는다면 이 두곳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의 여행지를 추천하자면, 파리는 말 할 것도 없고 까시스, 니스, 안시와 샬모니를 추천합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느낄 수 있는 니스는 정말 예쁘고, 니스보다 작은 규모의 소소한 남부 바닷가를 느끼고 싶을 때는 까시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시는 아주 예쁜 호수가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을 하기에 좋고,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느끼고 싶다면 샬모니를 추천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처음 타지에 도착하면 정리해야할 것도 많고,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서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현지에서의 생활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국을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인지해두고 힘들겠지만 도착한 순간부터 차근차근 행정적 처리를 해두어야 나중에 더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힘듦이 찾아오겠지만 못 할 일은 없습니다! 다 해낼 수 있고, 적응의 시간만 견뎌내면 즐거운 일들만 있을거니까요! 처음엔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오세요! 한국과 다른 느낌으로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파견된 기간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하다가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

5. 사진 자료 첨부

- 학생증



- 기숙사



- 교통카드



- OT 하던 날 / 게임 활동



- 학식



- TANDEM 친구와 놀이공원에 간 날

